



제목	바지의 문화사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민속원
발행일	1998. 10. 20.
저자	박춘순
출판국가	대한민국
페이지수	297
ISBN 또는 ISSN	200-2365003175

내용 요약

바지는 유목민족의 특징을 가장 잘 표시하는 복식 요소로서 유목민족계열에 속하는 페르시아 복식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은 바지의 기원, 아랍 및 서양의 바지, 중국의 바지양식, 일본과 한국 등 각 문화권의 바지를 조명하고 자연환경적인 요인과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구분되는 바지의 유형을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바지에 대한 연구는 바지의 기원에서부터 현재 우리가 상용하고 있는 바지에 이르기까지의 수많은 형식의 바지가 착용되었던 시대적 배경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유물로는 기원전 1000년경에 스키타이인들이 입었던 바지가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지금으로부터 300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깊은 복식형태인 것이다. 지역적 분포와 특징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서양·아랍·동양문화권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고찰된다. 특히 페르시아가 속한 아랍문화권은 동양과 서양문화권의 중간적인 위치에 놓여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문화권으로, 특히 샤르왈이라는 독특한 형식의 바지를 창출했다.

바지에 대한 연구는 단지 의복의 한 종류에 대해 고찰하는 복식사적 범주를 벗어난다. 단순한 복식사적 연구의 범주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온 인류의 삶의 한 단면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바지는 인간의 복식을 대표하는 중요한 의복이며, 이에 대한 연구는 인류 역사에 독특한 관점의 고찰되고 있다.